

여고부보다 빠른 이은빈 “쫄주니어육상 메달 따겠다”

〈전남체중 3〉



이은빈(가운데)이 지난 12일 경상북도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2회 전국육상경기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육상) 여자 중등부 100m 결선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50회 소년체전 2관왕...올해 중등부 4개 대회 100m 모두 제패 '단거리 차세대 스타' 전남체고 양예빈 혼성 1600m 제주 금메달

육상 단거리 유망주 이은빈(15·전남체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2회 전국육상경기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은빈은 지난 13일 경상북도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여자 중등부 200m 결선에서 25초68로 우승

했다. 2위는 26초13을 기록한 이다원(14·광양백운중), 3위는 26초40의 배운진(13·부원여중)이 차지했다. 전남 100m에서 12초27로 정상에 오른 이은빈은

이를 연속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세웠다. 이은빈은 중학교 졸업 전 마지막으로 치른 대회에서 2학년 오소희, 1학년 배운진 등 무섭게 성장하는 후배들을 제치고 '여중부 최강' 자리를 지켰다. 이은빈은 올해 열린 전국대회 여자 중등부 4개 대회(춘계중고육상대회, KBS배전국육상대회, 전국중등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00m에서 모두 우승했다. 이은빈은 "올해 여중부 100m 4개 대회에서 우승해 기쁘다"며 "내년 고교전학(전남체고) 후 예전에

서 열리는 2022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메달 획득에 도전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다른 환경에서 달리기 했지만, 이은빈과 오소희, 배운진은 여고부 선배들보다 좋은 기록을 냈다. 특히 이은빈은 여고부 1위 기록(12초61)보다 0.34초나 빨랐다. 여중부 경기는 뒤바람이 초속 0.2m로 불 때 열렸고, 여고부 결선에 출전한 선수들은 초속 0.6m의 맞바람을 맞고 뛰었다. 전남체고로 동지를 옮긴 한국 육상 여자 단거리 차세대 스타 양예빈(17)은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

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예빈은 배건울, 김동욱, 조영미와 팀을 이뤄 혼성 1,600m 계주에서 3분42초18의 기록으로 경북체고(3분49초39)를 따돌리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양예빈은 2019년 전국소년체전에서 여중부 3관왕(200m·400m·1600m 계주)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계주에서 50m 차이를 뒤집고 우승을 이끄는 등 압도적인 실력으로 육상계의 주목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당구 허정한 3쿠션 월드컵 준우승

한국 남자 당구 3쿠션 간판인 허정한(44·세계 랭킹 19위·사진)이 3쿠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허정한은 14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베겐에서 열린 2021 베겐 세계 3쿠션 월드컵 결선에서 스페인의 다니엘 산체스(세계 6위)에게 42-50로 패했다. 허정한은 2016년 후루가다 월드컵 우승 이후 5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렸으나 산체스를 넘지 못했다. 허정한은 16강에서 니코스 폴리크로노폴로스(그리스·세계 24위)를 50-35, 8강에서 2019 세계 선수권 우승자인 토브른 블룸달(스웨덴·세계 5위)을 50-36으로 제압했다. 준결선에서는 타이퐁 타스데미르(터키·세계 4위)와 치열한 공방전 끝에 50-47로 승리하며 최종 결승 무대로 나아갔다. 결승에선 가장 최근에 진행된 세계 3쿠션 월드컵(2020 안탈리아)의 우승자인 산체스와 맞붙게 됐다. 결승 역시 치열한 공방이었다. 7이닝째에 다니엘 산체스가 하이런 7점을 터뜨리며 16-12로 앞서나갔다. 허정한은 9이닝째에 하이런 8점을 폭발시키며 20-18로 재역전, 기세를 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13이닝째에 5점의 연속 득점을 올린 다니엘 산체스는 26-21의 스코어를 만들며 전반을 앞선 채 브레이크타임에 들어갔다. 허정한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17이닝에서 하



이런 8점을 다시 한번 기록하며 30-31로 추격했다. 18이닝에서도 4점을 기록하며 34-34 동점을 만들었으나 22이닝에서 하이런 7점을 기록한 산체스에게 36-42로 뒤지기 시작했다. 이후 24이닝에서 2점, 25이닝에서 3점을 기록하며 41-42로 허정한이 바짝 따라붙었지만, 26이닝에서 5점의 연속 득점을 산체스가 기록하며 사실상 승부의 마침표가 찍혔다. 허정한은 에버리지 1.500 하이런 8점, 산체스는 에버리지 1.785 하이런 7점을 기록했다. 7일부터 시작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 선수 총 14명이 출전했다. 공동 3위는 김준태와 타스데미르가 차지했다. 다음 3쿠션 월드컵은 12월에 이집트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2025세계양궁선수권'은 광주서

시, 21~22일 현지실사 준비 한창
올림픽 금 기보배·안산 등 PT 참석

광주시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 예정인 세계양궁연맹(WA)의 현지 실사 대응 준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실사단에 양궁 메카로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광주의 강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21일 첫날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회 준비 프리젠테이션(PT)'을 실시한다. PT는 지역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기보배·안산 선수 등이 참석한다. 최첨단 드론을 활용해 광주 국제양궁장 등 주요 시설을 입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21일에는 광주 국제양궁장, 월드컵경기장, 5·18 광장 등 경기장을 방문·실사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대회 기간 선수단이 체류할 호텔, WA 총회 장소인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의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다. 시는 실사단 이동 동선과 방문 시설에는 환영 현수막을 게첨할 방침이다. 광주 국악 상설 공연 관람,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광주만의 전통문화와 산업 발전상을 선보인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실사단



기보배

안산

에게 광주가 가진 메이저 국제대회 유치 노력과 인적, 물적 인프라 등의 강점, 시민들의 대회 유치 열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함께 세계 최대 양궁대회인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신청을 냈다. 개최지는 12월 초 발표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동강대 건축과 김지승씨 대학바둑 패왕전 우승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건축과 김지승(2년·사진)씨가 대학바둑 총재의 장인 '2021 대학바둑 패왕전'에서 우승했다. 김씨는 최근 서울 을빛마인드 경기장에서 열린 '대학바둑 패왕전'에서 유단자부B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바둑연맹이 주최하고 (사)대학바둑협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했다. 유단자부는 인터넷 유단자가 A부분(인터넷 6-8단)과 B부분(인터넷 5단 이하)으로 나뉘어 스위스 리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렸다. 스위스리그는 승자는 승자끼리, 패자는 패자끼리 계속 대결하면서 누적 결과를 집계해 승점으로 순위는 정하는 방식이다. 김지승 씨는 4승을 거둬 공동 1위에 올랐고 서든데스에서 승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이터널스
- 2관 이터널스
- 3관 강릉
- 4관 이터널스
- 5관 이터널스
- 6관 이터널스, 고장난 론
- 9관 아담스 패밀리 2, 베논 2: 핫 데이 비 카니지
- 7관 씨네케틀 1984 최동원 베논 2: 핫 데이 비 카니지
- 8관 씨네케틀 뚝, 고장난 론



광주시립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일시 : 2021.11.25(목)-27(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특별기획공연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11.28(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